

구약개론 2강 - 오경과 율법

<수업 목차>

- I. 구약 성경, 언제 확정했을까?
- II. 창조 사건
- III. 율법과 임마누엘
- IV. 소통의 하나님 - 다양한 율법들
- V. 정결법과 하나님의 형상

I. 구약 성경, 언제 확정했을까?

1) 표준적 대답: 구약 성경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정된 것은 암니아 회의(AD 90년경)

- 회의 혹은 공의회라는 말은 후대 기독교 전통에서 생긴 것
- AD 70년 헤롯 성전의 멸망으로 유대교가 새로운 종교로 명맥을 이어감
- 현 유대교는 회당과 기도, 말씀 중심의 종교로 이어감
-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부터 말씀 중심
- 바리새인은 말씀을 연구, 삶의 전 분야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해함
- 랍비들을 통한 탈무드 운동으로 이어짐 (히브리어 탈무드: 성경 공부)
- 요하난 벤 자카이: 당시 유대교 출범에 산파의 역할을 한 사람
- 예루살렘 멸망 후에 암니아로 이주하여 랍비 학교를 열었음
- 암니아 회의는 이미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책들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과정

2) BC 200년경부터 구약 성경의 체제는 어느 정도 그 틀이 거의 확립되어 있었음

- 정경의식: 정경으로 인정된 제한된 목록이 존재한다는 의식
- 누구도 목록을 발표하거나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, 암묵적으로 동의한 범위는 있었음
- 암니아 회의의 약300년 전에 정경의식의 존재

① 주전 2세기경 작성된 집회서의 서문

- ‘율법서, 선지서, 그 외의 조상들의 책들’을 읽는 일에 헌신하였다고 기술함
- 주전 2세기경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책들이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암묵적 정경의식이 있었음

② 약 150년 후에 요세푸스의 저작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옴

- 변증서 「아피온에 대한 반박」에서 유대교가 그리스 철학보다 윤리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함
- 그 과정에서 헬라 사람들과 구약 성경을 대조함
- 구약 성경을 24권에서 22권으로 언급

③ 주후 2세기 바벨론에서 기인하는 탈무드 바바 바트라에 목록이 나열되어 있음

- 총 24권으로 사무엘상하, 열왕기상하, 역대상하, 에스라-느헤미야는 한권의 책으로 제시됨
- 주전 2세기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성경 범위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

3) 외경 문제와 교파별 차이

- 구약을 39권으로 확정하고 있지만, 가톨릭 성경은 여기에 7권의 외경을 포함
- 70인역에는 외경들이 포함됨
- 예수님과 신약 성경은 70인역의 외경을 거의 인용하지 않음
- 로마 가톨릭은 주후 382년 로마 공의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
(제2정경: 토빗, 유딧, 마카베오기 상하권, 지혜서, 집회서, 바룩서 총 7권)
-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성경목록 확정함 (외경을 포함)
- 가톨릭 - 외경 포함 / 개신교 - 히브리 성경 기준
- 외경이 완전히 제외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 때 확정
-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신구약 66권만이 권위 있는 책으로 확정함

II. 창조 사건

1. 창세기 창조 기사의 서론적 이해

1) 최종 형태의 본문과 문예-수사 비평적 접근

- '최종 형태의 본문' 그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
- 문예-수사 비평적 접근
- 창조 기사는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'하나님 나라'라는 거대 담론을 여는 전략적 서론

2) 구조적 구분과 '톨레도트'

① 원역사와 족장사

- 창세기 1-11장은 네 가지 사건(창조, 타락, 노아 홍수, 바벨탑 사건)
- 족장사인 창 12-50장은 네 명의 족장(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요셉)으로 요약

② 창조와 구속사

- 창세기 1-2장과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혹은 신약의 계시록까지 2개의 큰 단락으로 나눔
- 창세기 1-2장은 창조사건, 창세기 3장부터 이후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속사건

③ 서론과 본론

- 창 1:1-2:3의 창세기의 서론으로 '창조기사'
- 창 2:4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의 본론으로서 열 개의 족보로 구성

'톨레도트': '낳다'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'알라드'에서 파생된 명사로, '낳은 것들' 혹은 '족보', '내력', '계보' 등으로 번역

3) 언약적 역사

- 창세기 1:1-2:3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통치권이 설정되는 '우주적 프로필'을 선포
- 톨레도트 구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역사의 구체적인 족보와 언약 관계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줌
- 창조는 창조 이후 전개될 모든 구속 역사의 신학적 대전제로 이해해야 함

순서	대상	성경 범위	비고
1	하늘과땅의 족보	1:1 - 2:3 2:4 - 4:26	창조의 결과가 역사로 전개되는 첫 가교
2	아담의 가족 족보	5:1 - 6:8	아담의 후손과 셋 계열의 보존
3	노아의 가족 족보	6:9 - 9:29	홍수 심판과 노아 언약
4	노아의 자손들의 족보	10:1 - 11:9	열방의 분산과 바벨탑 사건
5	셈의 족보	11:10 - 26	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선택된 줄기
6	데라(아브라함)의 족보	11:27 - 25:11	아브라함의 생애와 언약의 시작
7	이스마엘의 족보	25:12 - 18	약속 밖의 자손에 대한 기록
8	이삭의 족보	25:19 - 35:29	야곱과 에서의 갈등, 언약의 계승
9	에서의 족보	36:1 - 37:1	에돔 족속의 기원
10	야곱의 족보	37:2 - 50:26	요셉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

① 창세기 1장 1절- 2장 3절은 창조에 대한 기술이고, 2:4-4:26은 창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함

②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

- 10:1을 보면 “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”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이 연달아 병행되어 기술하는데, 2절에 야벳의 아들들,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, 21절에 보면 셈의 자손들이 마지막에 등장

③ 데라의 족보는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대가 내려갔다는 데에 있음

- 구원 역사를 담당할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음,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족보가 앞뒤 다섯 개씩 연결되어 있음

- 25:11에 “아브라함이 죽은 후에...”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나옴

④ 야곱의 족보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짐

-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구속사 족보 안에 남게 됨
-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약속을 이어가심

2. 창조의 본질

1) 통치 영역으로서의 창조

창조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'하나님 나라의 성소'를 이 땅에 건립하는 거룩한 과정

2) 통치와 질서의 수립: 왕권의 확립

- 창조 기사는 '무(無)에서의 창조'라는 물질적인 창조의 측면 포함
- 성경 본문이 더 집중하여 보여주는 것은,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'질서'를 부여하고 그분의 '통치'를 수립하시는가 하는 점
-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'나누시고', 공허한 공간을 '채우시며', 각 피조물에 '이름을 부여하시는' 것은 고대 세계에서 왕이 주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모습
-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세상을 통치 질서 아래 두심으로써 왕으로서의 주권과 왕권을 확립

3) 세상의 존재 이유: '우주적 성소'

-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화하고,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실제로 구현되는 장소로서 존재
-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창조되었음
-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'하나님 나라'의 출발점이며 본거지임을 선포하는 것

3. 인간의 정체성

1) 하나님의 형상

(창 1:26)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

-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'대리 통치자'이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'언약의 파트너'로 부름 받은 존재

2) 왕적-제사장적 사명

(창 1:28)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, 땅을 정복하라,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

- 창세기 1:28에 나타난 '복'과 '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'는 명령은 '창조 명령'
-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온 땅에 실현하라는 언약적 위임

3) 아바드와 샤마르: 성소의 제사장

(창 2:15)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

- '아바드(경작하다/섬기다)'와 '샤마르(지키다)'
-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를 관리하고 예배를 수종 들 때 사용된 용어들과 동일
- 에덴에서의 노동은 성소를 가꾸고 예배하는 제사장적 역할
-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로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'왕 같은 제사장'

4. 안식의 종말론적 의미

1)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

- “보시기에 좋았더라”라는 구절이 반복되면서 토브라는 표현이 나옴
- 언약신학의 관점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짐

(창 2:1)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

(창 2:2)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

- 창 2:1의 이루다, 창 2:2의 마치시니 둘다 완성하다의 히브리어) 칼라 동사가 사용됨

2) 구약의 안식일 제도란

우리가 창세기 1-2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안식을 지키는 것

안식일 제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인 제도

- 창 2:1-3에서 '안식'을 이야기한 것이고,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는 '안식일'을 이야기한 것
- 안식일 제도는 안식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인 제도
-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전인이 회복되는 날
-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안식일 제도는 임시적인 제도로서 종결되었고 모든 시간이 구속함을 받음
- 모든 안식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, 이를 통해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신앙의 의미로 지키는 것

계시의 점진적 발전과 언약적 연속성

- 창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'하나님 나라의 설계도'
- 창조 기사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통치 영역,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의 사명, 그리고 안식의 목표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집의 기초
- 창조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,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함
- 성경의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

1) 창조 사건의 의미

- 물질적인 창조
-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

2) 인간 창조의 의미

- 하나님을 닮은 존재
- 대리 통치자

3) 안식의 의미

-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

- 복, 후손, 땅, 통치와 같은 창조의 핵심 주제들은 각 언약의 맥락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깊어지며,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온전한 성취를 이룸

- 창조-언약-하나님 나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통일체로서 성경의 계시를 이끌어감
-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, 그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되는 '새 하늘과 새 땅'의 종말론적 안식을 향해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

III. 율법과 임마누엘

율법은 바로 그 왕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

1. 코람 데오: 하나님 앞에서

- '코람(Coram)': '~의 앞에서' / '데오(Deo)': '하나님'
- "하나님 앞에서" 사는 삶
- 삶의 전 영역: 아브라함 카이퍼 "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'내 것이다!'라고 선언하지 않은 영역은 단 한 치도 없다"
- 율법은 상거래법, 형법, 민법, 도덕법 등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음
- 율법은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함

■ 언약적 관계: '신랑과 신부'의 관계로 묘사

(렘 30:22)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

-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식으로 이해

(신 4:7-8)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(8)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

2. 종주권 언약 형식

히타이트 종주 조약 문서는 강대국 히타이트와 약소국 사이의 조약으로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

① 왕의 이름 제시 (Preamble)

- 특징: 계약을 맺는 주권자인 왕의 이름과 칭호를 가장 먼저 선포하여 그 권위를 세움
- 성경적 적용: 십계명의 서두에서 "나는 너를 인도해 낸 여호와니라"

② 은혜의 회고 (Historical Prologue)

- 특징: "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"는 근거를 제시
- 성경적 적용: "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" 사건을 언급

③ 의무 사항 (Stipulations)

- 특징: 은혜를 입은 봉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
- 성경적 적용: 십계명의 각 조

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지키는 것

④ 축복과 저주 (Blessings and Curses)

- 특징: 계약 조항을 잘 준수했을 때 주어지는 복과,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될 화(저주)
- 성경적 적용: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방대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들

⑤ 문서 보관 (Deposition of the text)

- 특징: 성소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상시 확인하도록 함
- 성경적 적용: 십계명 돌판을 법궤 안에 보관한 것이나, 왕들이 율법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읽게 한 것 등

IV. 소통의 하나님 - 다양한 율법들

- 왕의 지혜와 정의로움을 찬양하기 위해 기록된 '이념법'
- 실제 재판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'실정법'

1. 율법의 네 가지 뭉치법(코드)

1) 언약 법전 (출 20:22~23:33):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주신 가장 기초적인 법률, 십계명 해설

2) 제사장 법전 (출 25장~레 16장): 성막 건축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, 제사장의 역할

등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적 규례

3) 성결 법전 (레 17~26장): "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"는 말씀처럼,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성결과 정결에 관한 규정

4) 신명기 법전 (신 12~26장):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전달된 법률로, 가나안 정착 생활에 대해 모세가 다시 설명한 율법

2. 실정법으로서의 율법과 모순의 해결

사례 1 (유월절 어린양 제사에 대한 법)

- 출 12:8(언약 법전)에서는 유월절 어린양을 반드시 '불에 구워' 먹으라고 명령

이는 당시가 출애굽 직전의 매우 긴박한 야영 상황이었기 때문에,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

- 반면,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기록된 신 16:7-8(신명기 법전)에서는 '삶아서' 먹으라고 기존의 법을 개정함. 신명기 율법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을 위한 법인데, 유월절이 다른 농사 절기들의 일부가 될 것을 고려하였음

사례 2 (안식일 준수에 대한 법)

- 출 20:8-11(언약 법전)의 십계명은 안식일의 근거를 '하나님의 창조와 휴식'에서 찾음.

하나님께서 제7일에 쉰 것을 본받아서 제7일에 안식해야 한다는 것

(출 20:8-11)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(9)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(10)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(11)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

- 하지만 신 5:12-15(신명기 법전)에서는 그 근거가 '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'으로 바뀜.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창조에서 구원으로 심화된 것

(신 5:12-15)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(13)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(14)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(15)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

- 성경의 율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

-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'율법의 정신'은 변하지 않음
- 율법에 있는 중복이나 모순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증거함
- 중복되고 모순되는 성경의 내용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증함

V. 정결법과 하나님의 형상

1. 도덕법과 정결법의 차이

1) 도덕법

- 살인이나 도둑질, 간음처럼 사회 규범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적용되는 법
- 법을 어기면 도덕적으로 부정해졌다고 보며,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뒤따름

2) 정결법

- 출산, 특정한 질병, 혹은 사체와의 접촉처럼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제의적인 부정의 상태를 다룸
- 정결법상 '부정하다'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
- 다만, 그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, 즉 예배에 참여하거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고, 제사장은 성무를 감당하지 못함
- 부정함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제의를 거치면 다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음

2. 정결법의 목적

-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그 거룩함을 본받고 닮아가야 함
-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부정한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게 하셨음
- 사람을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상황은 죽음과 성에 연관되어 있음
-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정결함이 무엇인지 배우고,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,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
- 정결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확인하며,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아 그 분과 깊이 교제하도록 돕는 소중한 지침

결론: 율법의 현대적 적용

율법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,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신앙의 지침

■ 율법을 대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함

- 하나는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'문자주의', 다른 하나는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치부하는 '반율법주의'.
- 예수님께서서는 복잡한 율법의 모든 내용을 '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'이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하

고 정의해 주셨음

- 우리는 율법의 문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,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되살려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적용해 나가야 함

■ '코람 데오(Coram Deo)'

-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요구함
-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치도 없음
-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상거래, 법, 도덕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,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현재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